“광산구청 시민 품으로”…‘시민광장’ 새 단장

야외 광장·1층 통합라운지 조성

개장식·문화공연 공유 행사 개최

“소통·문화·쉼 공존 공간 등 활용”

시민 누구나 문화와 휴식을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한 광산구청 시민광장 개장식이 22일 구청 앞 잔디광장에서 열려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시민 등이 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광산구 제공〉

광주 광산구 청사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광산구는 22일 오전 청사 앞에 조성한 ‘광산구청 시민광장’ 개장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개장식과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광장 조성 사업은 ‘청사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 아래 진행됐다. 광산구는 기존 야외 광장과 화단, 유휴 부지를 정비해 잔디광장과 데크쉼터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몄다.

앞서 청사 1층 통합라운지는 ‘모두의 쉼터’로 개방돼 운영 중이며, 편안한 좌석과 탁자, 카페·회의실 등이 마련돼 민원 상담과 회의는 물론 전시·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는 각 부서가 참여한 특별업무팀을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모두의 쉼터’와 ‘시민광장’ 조성에 힘을 모았으며, 1996년 청사 신축 이후 28년 만에 이뤄진 이번 공간 재편을 통해 광산구 청사는 시민 누구나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공공장소로 탈바꿈됐다.

이날 문화 행사에서는 타북 퍼포먼스로 시민광장 개장을 알렸고, 타악그룹 ‘얼쑤’와 밴드 ‘무드리스트’의 축하 공연이 분위기를 돋웠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구청이라기보다 탁 트인 공원 같다”,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앞으로 자주 찾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산구는 시민광장을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녹색 쉼터로 운영하며 시민·소상공인 참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오늘 개장한 시민광장과 ‘모두의 쉼터’는 민선 8기 열린 청사 행정의 상징이자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소통과 문화·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옥근 기자

내일 화순서 ‘웰니스·치유관광 활성화’ 모색

한국관광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

전문가 기조연설·사례발표·토론 등

(사)한국관광연구학회는 22일 “오는 24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웰니스·치유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2025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올해 제정된 ‘치유관광산업 육성법’과 정부의 K-웰니스 산업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기반 치유관광의 방향성과 실천전략 등을 논의한다.

특히 지방소멸시대의 지역 관광 위기를 진단하고, 웰니스·치유관광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형 관광모델 개발 방안을 모색한다.

학술대회는 특별세션, 학술세션, 대학생 공모전, 호남권 DMO 세션 등 총 4개 분야로 진행된다.

‘특별세션 I ’에서는 신원섭(전 산림청장) 충북대 명예교수와 김정섭(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전문위원) 성신여대 교수가 각각 ‘치유산업의 길을 찾다’와 ‘K-컬처와 지역특화관광’을 주제로 기조연설 한다.

‘특별세션 II ’에서는 이용근 공주대 교수, 강상국 강릉원주대 교수, 강영란 전남도립대 교수가 의료·웰니스 융합과 지역 중심의 치유관광 활성화 사례를 발표한다.

‘호남권 지역관광협의회(DMO 세션)’에서는 김재호 인하공전 교수의 ‘호남권 관광 협력 및 지역관광 활성화’ 발표를 시작으로 안태기 광주대 교수의 진행 아래 김완수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등 15개 기관이 호남권 공동브랜드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한다.

박창규 한국관광연구학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웰니스와 치유 콘텐츠가 풍부한 전남에서 열리는 만큼, 지역관광의 미래를 준비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진 기자

전남 특수학교 학생 23.9% ‘통학 1시간 이상’…전국 최다

전남 지역 특수학교 학생 4명 중 1명 가까이는 통학에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특수학교 학생 1천242명의 통학(편도) 시간은 30분 미만 642명, 30분-1시간 303명, 1-2시간 294명, 2시간 이상 3명이었다.

1시간 이상 통학생 비율은 2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북(19%), 제주(15.5%), 울산(11.5%), 충북(10.8%), 경기(10.7%), 충남(10.1%)도 전국 평균(8.8%)보다 높았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초등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 30분,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규정했다.

김문수 의원은 “특수학생이 지나치게 긴 통학 시간으로 고통받고 있고, 특히 전남이 제일 심각하다”며 “인프라 개선, 특수학급 신·증설 등 단축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서부권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무안에 특수학교를 설립 중에 있고 2029년 3월 개교 예정”이라며 “장시간 통학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특수학교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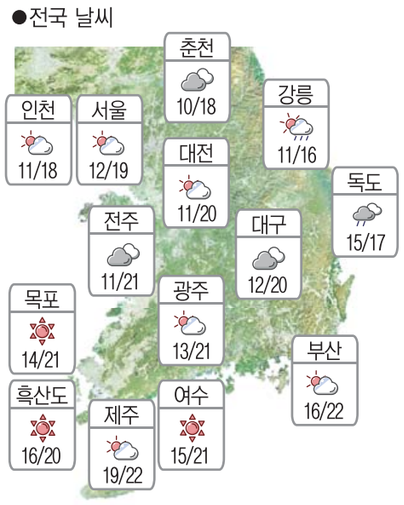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06:45 해짐 17:48 달뜸 08:16 달짐 18:24

●광주·전남 날씨

광주	구름조금	13/21	장성	구름조금	12/22
목포	맑음	14/21	보성	흐려져 비	9/15
여수	맑음	15/21	함평	맑음	13/22
나주	구름조금	11/21	순천	구름조금	14/22
완도	맑음	15/23	영광	맑음	12/21
구례	구름조금	11/22	진도	맑음	13/21
강진	구름조금	12/22	흑산도	맑음	16/20
해남	맑음	12/22	고흥	맑음	14/23
광양	구름조금	14/21	담양	구름조금	12/22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0.5-1.5	0.5-1.5
	먼바다(북)	1.5-3.5	1.5-3.0
	먼바다(남)	1.5-3.5	1.5-3.0
남해 서부	앞바다	0.5-2.0	0.5-2.0
	먼바다(동)	1.5-3.5	1.5-3.5
	먼바다(서)	1.5-3.5	1.5-3.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3:16	08:31	여수	09:53	03:18	녹동	10:35	04:14
	15:57	21:04		21:49	15:54		22:28	16:59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80 감기 조심해요

세 차 80 세차하기 좋은날

빨 래 70 실외건조 좋아요

운 동 60 운동 후 체온 유의

●주간 날씨

24일(금)	25일(토)	26일(일)
(11/21) 구름조금	(12/21) 구름많음	(12/19) 맑음
27일(월)	28일(화)	29일(수)
(9/15) 맑음	(6/15) 맑음	(6/18) 맑음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